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형제 회 장소;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 Tor, Ont M3C 1W1

연락처; 28 Wedgewood Dr Toronto Ont M2M 2H3

Tel; 416-250-6319 E-Mail; johnvianney@hotmail.com

형제 회 일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30 호

1 월 형제 회 소식

2008 년 1 월 26 일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영적보조 수녀님 말씀
- 오전 11 시-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늘은 친교가 없습니다.

봉사자 보고

* 2008 년 2 월 월례회는 2 월 23 일(토) 오전 10 시 한맘 성당에서 있습니다.

총회 및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형제애 정신으로 모두 참석하시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런던 준비 형제회 선거는 지구형제회 사정으로 연기 되었으며 날자는 미정입니다.

* 2008 년 7 월 31 일(목) - 8 월 3 일(일) 3 박 4 일 제 8 차 북 남미 연수회가 미국 LA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 에서 있습니다.

참가비 \$280.00, 관광 3 박 4 일 \$370.00 합계 US\$650.00 를 4 월 말까지 불입 완료 바랍니다.

* 2008 년 10 월 10 일(금) - 12(일) 2 박 3 일 연례피정이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에서 있습니다.

* 선교 후원금을 저희 형제회에서 \$5,000.00 런던 성 다미안 구역에서 \$1,000.00 을 합하여 \$6,000.00 을 송금하였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허 금분 곤솔시아 자매님이 교통 사고로 허리 영치뼈 수술을 하셨습니다. 47 Austin Terrace Hillcrest Ctr. Tor. Reb #319 호에 임원 중이십니다.

도서담당 보고

◆ 성모기사 1 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성모기사 회원은 수령 하시기 바라며, 2008 년도 회비 납부는(권장 회비 연\$30 , 부부회원 \$40) 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회원 신청은 도서담당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08 년도 '평화의 사도' 와 '프란치스코 삶과 사상' 구독하시는 회원은 연 구독료 (각각\$40 씩) 납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07 년도 59 회 에미상 비드라마 최고의 영예상을 비롯 촬영상, 음악 작곡상, 음향 편집상 등 4 개 부문을 수상한 영국 BBC 방송의 초대형 자연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 (Planet earth) DVD (KBS 방송 한국말 해설판) 를 빌려 보시기를 권장 합니다. 웅장한 자연의 신비 앞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양성 보고

<입회반>

담당; 이 계희 로사리아

일시; 2007 년 12 월 29 일(토)오후 2 시-4 시

장소; 한맘 성당 2 층 10 호실

총인원;9 명 출석;9 명

주제; 교재 폰테 콜롬보 제 3 과 '복음을 사는 사람들' 회칙 제 4 조를 공부하였습니다.

복음적 생활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복음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나눔을 하였습니다.

<서약 준비반 >

담당; 오 성호 안드레아

일시; 2007 년 12 월 29 일(토) 오후 2 시-4 시

장소; 한맘 성당 2 층 세미나실

총인원;7 명 출석 6 명 결석 1 명

주제; 교재 폰테 콜롬보 제 14 과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하느님 나라 건설, 하느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대하여 알아보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대한 재속 프란치스코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원반>

담당; 이 선영 마리아 하상 바오로
 일시; 2007년 12월 29일(토) 오후 2시- 4시
 장소; 한맘 성당 2층 3호실
 총인원; 15명 출석; 13명 결석; 2명 (1명 건강상 이유로 중단)
 주제; 교재 아씨시 제 3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1)’ 을 공부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대적 배경과 성인의 근본적인 삶의 원천이 되었던 회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역모임 보고

<레오 구역>

진행; 강 희백 도미니코
 일시; 2007년 12월 30일(일) 오후 1시
 장소; 예수성심 성당 소 회의실
 참석인원; 9명
 주제; 안으로 가는 여정 (성 프란치스코의 길)
 기타사항; 지원반에서 양성 중인 형제자매들과 친교가 있었습니다.

<비오 구역>

일시; 2008년 1월 13일(일) 17:00 -
 장소; 김 정란 데레사 댁
 참석인원; 11명
 주제; 사부님께서 주신 종신선물 & 성인의 권고 말씀 2 함께 읽기
 기타사항; 다음 구역모임은 2008.02.17(일) 17:00
 곽호경 마태오/곽봉숙 비비아나 댁

회계 보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160.99	\$110.00	\$811.25	\$5,459.74
선교 후원금	\$5,379.24	\$330.00	5,013.81	\$695.43

*** Life is not complex.
 We are complex. Life is simple, and the simple thing is the right thing. ***

<Oscar Wilde>

영명 축일 축하합니다.

- ♥ 1월 4일 폴리뇨의 복녀 안젤라 수도자 (재속 3회)
- ♥ 1월 21일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 ♥ 1월 28일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사제 학자

****나누고 싶은 생활의 지혜****

황설탕을 사용하고 남겨놓으면 얼마 있다가 굳어서 도저히 사용 할 수 없도록 돌덩이 같이 된다. 사과를 깨끗이 씻어 벗긴 껍질을 설탕 봉지나 그릇에 넣어주면 2-3일 후에 덩어리가 부스러져 설탕을 버리지 않게 된다. 처음 부터 설탕 그릇에 사과 껍질을 넣어놓고 사용하면 절대 굳어지는 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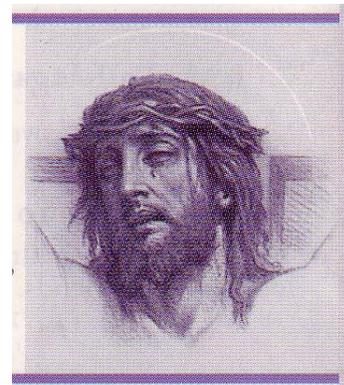
<김 여정 미카엘라 제공>

잠깐 묵상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심도 많고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번덕스러움과 부족함, 결점과 연약함을 넓은 마음으로 쉽게 용서하며 항상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데 아주 능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바람입니다만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자매를 부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는 참되게 가난한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 이유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를 계속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 때문입니다.

<가난의 찬가 본문 중에서>



2월 6일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며 단식일이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가 시작 됩니다
 사부님과 함께 발자취를 따라 회생,극기, 보속을 하기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 할 수있도록 서로서로 기도 합시다